

농어촌공사공주지사,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조치 점검

✎ 이건용 기자 | 📅 승인 2025.07.31 15:57



▲ 박재근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지난 30일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건설현장 등을 찾아 폭염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 보호조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는 지난 30일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건설현장 등을 찾아 폭염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 보호조치 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연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비롯한 시설원예지능형임대온실조성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설현장 야외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특히 각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물 ▲그늘 ▲휴게시설 ▲보냉장구 ▲응급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박재근 공주지사장은 폭염 속 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점검과 예방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는 매월 공사 직원과 시공업체 현장 대리인이 한자리에 모여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안전보건 협의체와 합동안전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건설현장 근로 보호조치 상태 점검

✎ 이병인 기자 | © 승인 2025.07.31 15:02

음용수·휴식공간 제공 등 이행여부 중점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가 31일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건설현장 등을 찾아 폭염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 보호조치 상태를 점검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지사장 박재근)는 31일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건설현장 등을 찾아 폭염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 보호조치 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연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비롯한, 시설원예지능형임대온실조성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설현장 야외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자 실시했으며 각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박재근 공주시사장은 "폭염 속 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매월 공사 직원과 시공업체 현장 대리인이 한자리에 모여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안전보건 협의체와 합동안전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公 공주시,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조치 점검

✎ 이효섭 기자 | ⓒ 승인 2025.07.31 14:55

음용수·휴식공간 제공 등 이행여부 중점 점검



▲현장대리인에게 근로자 온열질환 보호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충남공주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 공주시가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에 따른 보호조치 상태를 31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연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비롯한, 시설원예지능형임대온실조성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물 △그늘 △휴게시설 △보냉장구 △응급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박재근 지사장은 "폭염 속 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점검과 예방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이효섭기자



이효섭 기자 9922hs@hanmail.net

농어촌공사 공주시사,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조치 점검

음용수·휴식공간 제공 등 이행여부 중점 점검

고종선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5-07-31 11:31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지사장 박재근)는 7월 30일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건설현장 등을 찾아 폭염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 보호조치 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비롯한, 시설원예지능형임대온실조성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설현장 야외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자 실시하였으며, 각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물 ▲그늘 ▲휴게시설 ▲보냉장구 ▲응급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박재근 공주시사장은 "폭염 속 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과 예방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 공주시사는 매월 공사 직원과 시공업체 현장 대리인이 한자리에 모여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안전보건 협의체와 합동안전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주=고종선 기자

농어촌공사 공주시사,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조치 점검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5.07.31 14:15

음용수·휴식공간 제공 등 이행여부 중점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근로자 온열질환 보호조치 점검을 실시했다. 공주시사 제공.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건설현장 등을 찾아 폭염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 보호조치 상태를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비롯한 시설원예지능형임대온실조성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설현장 야외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각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물, 그늘, 휴게시설, 보냉장구, 응급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박재근 지사장은 "폭염 속 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점검과 예방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매월 공사 직원과 시공업체 현장 대리인이 한자리에 모여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안전보건 협의체와 합동안전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